

정부, 폐기물 처리 업무 공공화 추진

정부가 폐기물 처리 업무의 공공화를 추진한다. 민간 영역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관리·감독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생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일회용품의 사용 금지 시기를 당초 2027년보다 최대한 앞당기기로 하고,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만든다.

불법투기·방치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는 오는 21일 발표하고, 필리핀서 되돌아온 폐기물 3월중 끝내기로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견고한 폐기물 관리, 대국민 생애서비스 확대, 녹색산업 육성 방안 등 3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상반기 중 폐기물 처리 구조에서의 공공 관리를 강화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내놓는다. 공공처리 용량을 늘리기 위해 공공 선별·소각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 상당부분 맡겨 있던 재활용 시장은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권역별 점검체계를 구축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현황과 관내 재활용업체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상시 감독하고, 폐비닐 등 폐자원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물량 변동 추세와 수출입동향을 모니터링해 사전 대응해 나간다.

불법투기·방치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와 제발 방지책은 오는 21일 발표한다. 100만 이상 쌓여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폐기물에 대해 원인이자 최대한 회수·처리토록 하되,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공공소각장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표적 사례가 경북 의성군 재활용업체가 쌓아놓은 총 17만3000t의 방치폐기물이다. 화재 진압에 필요한 2만1000t을 긴급 처리하기 위해 국비 24억3000만원을 지난 1일 지원했으며,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처리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군산 공공처리장에 보관 중인 약 1100t의 폐기물은 토지 소유자가 회수 처리하도록 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되돌아온 폐기물 121t의 소각 처리는 3월중 완료한다.

제발 방지책에는 폐기물 원인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강화와 폐플라스틱 수출 허가제 전환 등이 담겼다.

선별·소각시설 확충 마스터플랜 상반기중 마련 불법투기·방치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21일 발표 필리핀서 되돌아온 폐기물 3월중 처리 끝내기로

정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생산 및 소비구조도 확립한다.

주요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30곳에 대해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최초로 설정·부여하고, 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소비 단계에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2027년까지 '제로(0)'화 하는 내용의 '제1차 자원순환 기본 계획'의 이행 로드맵은 앞당겨 마련한다. 그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을 연간 40%로 줄이는 감축 목표 시행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올해로 3년 앞당길 방침이다.

정부는 국토·환경계획 간 연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과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처음으로 연계·수립한다.

개발로 환경이 훼손된 만큼 복원하거나 보상을 내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제의 상세 제도설계안'(가칭)도 연내 마련키로 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보전 가치·축적 가능성·외국사례 등을 고려해 총량제를 적용할 자연자원을 정하고, 구체적 산정 및 평가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라는 계획이 환경부 측 설명이다.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시범적용한다.

미세먼지와 폭염 등 도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태복원 사업 40곳을 추가 확충한다. 국립공원 주변 노후지역을 친환경 숙박·

체류지역으로 재생해 저지대(低地帶) 탐방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소방관 등 혹독한 업무환경에 속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혜택으로 준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찹집(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원 전문검사관 제도를 만든다. 광주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전담기관도 짓는다.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이를 통해 연간 수출액 10조원 달성, 일자리 2만4000개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별 오염물질허가 기준을 부여하는 통합환경관리 제도의 대상을 170여 개 사업장으로 늘린다.

특히 5대 발전 공기업 29개 발전소의 경우 연내 허가를 끝내 오염물질 배출량을 25% 가량 저감할 계획이다.

뉴시스



방독면 쓴 관광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으로 한복을 입은 한 관광객이 방독면을 쓰고 지나가고 있다.

영산강환경청,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전수점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산강·섬진강의 수질오염 개선과 녹조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에 대한 전수점검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또는 1만㎡ 이상 제철시설·섬유염색시설

등이 포함되며 지난해 말 기준 지면 내 292곳이 해당된다.

환경청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점검을 벌여 비점오염원 저감계획 이행과 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변경신고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환경청은 최근 3년 동안 관리실

태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관리 필요 사업장은 집중 현장점검을 펼친다.

이들 비점오염원 관리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영세사업장 시설 유지관리·퇴적물 제거방법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은홍 기자

영국, 모든 택시에 CCTV 설치

영국 정부가 택시 운전기사의 연이은 폭력 및 성폭행 사건에 대책을 내놴다. 택시 운전 자격 기준은 한층 강화됐고, 모든 차량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교통부(DfT·Department for Transport)는 택시 기사를 상대로 한 최소 국가 기준을 마련하고, 면허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이 착수됐다. 이에 따라 지역 정부는 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강화된 범죄 기록, 개인 정보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발일 예정이다.

택시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막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CCTV 설치를 통해 승객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 학대, 막무가내 식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차량에 부착된 CCTV의 영상은 범죄가 신고되는 경우에 한해 볼 수 있도록 제한된다.

교통 당국은 "운전자 대부분은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만 소수의 택시 운전자는 그들의 직업을 이용해 취약한 사람들, 특히 여성과 어린 이들을 해친다"며 "새로운 규칙을 통해 승객들은 적절한 택시에 탑승할 수 있고, 나쁜 의도를 지닌 이들은 택시 운전대에서 떨어뜨려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택시법 개정 논의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승객으로 탑승한 여성 12명을 연쇄 성폭행한 런던의 택시 기사 존 워보이스(61)의 가석방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인도 뉴델리 호텔에서 화재...최소 17명 사망

인도 수도 뉴델리에 있는 한 호텔에서 12일 화재가 발생해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인도 NDTV 방송 등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4시에 뉴델리 서부 카롤 바고에 위치한 5층짜리 아르피트 팰리스 호텔에서 발생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자 소방차 26대가 출동해 현장에서 투숙객 등 35명을 구조했다. 불길은 잡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린이 1명과 여성 1명을 포함해 17명이 사망하고, 최소 4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가 투숙객들 대부분이 잠을 자던 새벽녘에 발생해 희생자 규모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 중에서는 호텔 방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美남부침례교, 대규모 성비리 파문

1500만명 이상의 신도를 가진 미국 최대 신교도 교파 남침례회에서 대규모 성비리 사건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고위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 380여명이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7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텍사스주 대형 언론사들인 휴스턴 크로니클과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7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학대를 당했으며, 일부는 낙태를 경험했다. 여러 피해자들은 가해자들로부터 합의를 종용받기도 했다.

목사, 집사, 주일학교 교사, 자원봉사자 등 380여명이 성비리에 가담했으며, 이중 220여명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0명 중 90명은 현재 복역 중이며, 100명은 성범죄자로 등록돼 있다.

남부침례교는 4만7000여개의 교회들이 모여 있으며, 중앙교단의 통제력이 약한 편이다. 실제 남부침례교는 지난 2013년 아동 성학대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터키 이스탄불 군용헬기 추락 4명 사망

터키 이스탄불 주택에 11일(현지시간) 군용 헬기가 추락해, 헬기에 타고 있는 군인 4명 전원이 사망했다.

알리 예를리카야 이스탄불 주지사는 이날 저녁 6시 50분께 이스탄불 체크메카이 지역에 UH-1형 헬기가 추락해 이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추락 직후 부상당한 군인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헬기 기체가 건물 사이에 떨어져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군 당국은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임신기간이 종료하였으나, 미지 여의 임신 양산시에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